

# 필라델피아에서 발견한 나눔의 가치

글 | 전홍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만**은 사람들이 미국을 알 수 없는 나라라고 한다. 거의 매일 뉴스에 충격 사건이 보도되고, 지하철과 버스 광고판에 마약중독자와 AIDS 환자에게 무료상담을 권유하는 공익광고와 실종된 여성을 찾는 전단이 곳곳에 붙어 있으며 저녁에는 외출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곳. 하지만 지난 6월 '기빙 USA 재단'이 발표한 것처럼 지난 한 해 기부금 총액이 2485억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25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연간 1억명의 자원봉사자가 이웃과 함께 나눈 시간이 190억 시간.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1500억달러(150조원) 이상이 되는, 서로 다르면서 또 같은 두 얼굴을 가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저력을 증명한 '알렉스의 레모네이드'**  
 얼마 전 우리에게도 소개되어 감동을 안겨 준 '알렉스의 레모네이드' 이야기는 미국인들의 삶 속에 나눔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1997년 필라델피아 웨인우드에서 태어난 알렉산드리아 스코트는 첫 번째 생일 이틀 전에 '신경아세포종'이라는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된다.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던 알렉스는 네 살 때인 2000년 7월 소아암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 잔에 1달러'로 한 소녀의 앞마당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기부금이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300만달러를 모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알렉스의 레모네이드가 감동을 바탕으로 하는 나눔의 문화를 대표한다면 필라델피아 공동모금회(United Way of South Eastern Pennsylvania)는 이런 나눔의 토양에 절기에 맞춰 비료를 주고 가꾸는 과학적인 영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자원봉사로 함께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온 시민들이 자리 잡고 있다.

## 모금전문 자원봉사의 활약

지난해 필라델피아 공동모금회가 250만의 시민, 1200개 기업의 110만명의 노동자들에게서 모은 기부금 총액은 486만달러(약 500억원)에 달한다.  
 미국 나눔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모금활동을 전문으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파견이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Loarned Executive가 그들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스스로 기부금을 내는 것은 물론 직원까지 파견해 모금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8월 중순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기업들로부터 지원받은 자원봉사자들이 공동모금회 직원이 되어 직접 모금활동에 나선다.  
 자원봉사자들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4개월 동안 각기 20~30개 이상의 기업을 선정하고 모금 목표를 정한 뒤 기업대표와 직원대표를 만나 직원 설명회는 물론 이벤트 등을 기획, 실행하며 다양한 모금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기업들도 단순히 직원을 파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전문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해 4개월 뒤 이들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 진급 및 부서 선택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를 활성화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간 이어지는 빡빡한 교육일정을 통해 이들은 평범한 회사원에서 모금전문가로 변신하게 되며, 여기에 기업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이 더해진 결과가 바로 500억원이 넘는 모금액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이 교육기간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모금'이나 '기부'가 아니라 '대화'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